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종



우리는 멋지고 근사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을까.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다가오곤 했다.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우리 가련한 백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다가 끝내 모멸감을 안겨준 채 떠나가곤 했다.

왜 우리한테는 그런 대통령들만 있었을까? 우리한테 복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을까. 생각건대 우리는 복도 없었고, 선택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은 그렇다치고 선택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여리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선택의 어리석음이다. 민심과 여론은 혼명하지 못하고, 큰 과오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 독일 국민이 나치의 선동에 현혹되어 열화 같이 히틀러의 등장을 환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국 일본은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는 대재

앙을 불러왔다.

둘째는 선택의 비루함이다. 권력의 횡포와 그로 인한 공포 분위기에 주눅이 들면 백성들은 비루한 선택을 하게 마련이다.

그 속성을 알고 있는 권력은 백성들의

아, 대통령!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분열시키고, 부패시키고, 결국은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비루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군부 독재였고, 계속해서 이어진 어리석은 선택으로 군부 세력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체육관

에서 의식이라고는 없는 로봇 인간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을 뽑았으나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이승만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두 번씩이나 마강한 상대 후보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단독 출마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고, 결국 백

였겠는가.

멋지고 훌륭한 대통령은 어떻게 대미를 장식했는지를 보면 확인해 알 수가 있다.

영터리 대통령은 마지막 장면이 지저분하

고 혐오스럽지만 멋진 대통령은 죽음 자체가 예술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프랑

스의 사울르 드골 대통령이다.

2차 대전 중에 항공전선을 아틀라스

의 전후에 대통령이 되어 프랑스의 영광

을 되찾은 위업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하

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쏟아

진 영광만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유연하기를 자신의 주검을 국가

장으로 치르지 말고 가족장으로 치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도 묻지 말고 고향 꿩풀밭에 있는 땅 옆에 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당부대로 그의 유해는 어릴 때 장애아로 죽은 땅 옆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정부가 주는 대통령 연금도 받지 않겠다며 그 돈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현재의 드끌기념관은 그의 사후 협회이 어워진 부인 이본느 여사가 팔려고 내놓았던 집을 어느 사업가가 인수해서 그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 현대화의 힘을 마련하고 오늘의 중국 경제를 있게 한 장본인인 등소평 역시 유언에 따라 회장한 다음 그 유언은 가족들과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바다에 뿐려졌다. 주은래 총리 역시 “내 유골은 조국의 강산에 뿐려다오”라고 유언했고, 그 말에 따라 그 유골은 천진과 황화등 산곡에 살포됐다.

2013년, 이제 곧 새 대통령이 등장한다.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나 되었으나 이제 우리도 멋지고 근사한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감히 한 번 기대해본다.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국립공원 무등산을 사랑합니다



문용운

산과 강은 아픔과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삶의 빠진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다. 사방에서 온 사람을 맞아 쟁여 주고 먹여 주며 편히 재워준다. 우리 동네 곁에는 무등산이 있다. 그런 무등산이 새로운 마음으로 더 넓고 큰 산으로 국민 앞에 섰다. 지난해 12월 27일자로 21번째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해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와 인접해 1000m 이상의 높이를 지니고 있어, 생태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큰 산이다. 세계적인 희귀한 사례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주변 너덜경과 함께 1억만년 전의 중생대 빙하기 시대의 자연적 유산을 가진 산이다. 제주도 한라산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산이다. 특히 서울·

경기의 북한산국립공원과 경남·북의 가야산국립공원보다 조금 작은 무등산은 2011년에는 72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세계유산비시아드가 개최되는 2015년에는 10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민시인 ‘퀴쉬긴’은 노래하고 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겨 날이 오고야 말리니’

기쁨보다 아픔을 나누는 친구는 영원하다.

무등산은 광주의 역사적 아픔을 영장강

을 따라 세상의 바다에 전하고 있다.

무등산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을 임태한 산

으로 광주의 정신이 시작되는 곳이다.

임진왜란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활동했던 역사의 공간이었다. 또한 제2의 학생 독립운동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연지기가 무등산에서 비롯되었다.

광주시민은 노래하고 있다. ‘광주는 무등을 업고/ 무등은 광주를 안고/ 날아간다 날아간다 미래의 푸른 하늘/ 사랑도 미움도 표정으로 보여주는/ 아 우리의 무등 우리 마음의 날개여’

계사년은 광주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도약을 준비하는 해이다. 또한 민주주의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그 면모를 다지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광주시가 목표했던 5대 국제행사 중에 2013세계한상대회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자문회의,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등 행사 유치와 함께 올해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광주인권도시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열리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무등의 황로이기도 하다. 특히 2015하게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는 광주시민의 영원한 친구이며 동료이며 어버이 같은 무등산이 대한민국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더욱 새롭고 희망차다. 무등은 광주의 날개다.

그리고 보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등산국립공원은 인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산이다. 시원한 솔바람이 불고, 태고적 산상의 주상절리가 있으며, 맑은 물이 풍부한 무등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둬야 한다.

첫 번째는 복원 작업이다. 현재 중심사 지

구는 친환경적인 생태복원과 각종 시설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장이 있는 원효지구는 추가적인 새로운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무등산정상에 군사시설과 각종 송수신통신탑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높은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4회에 걸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 것은 시민의 무등산 사랑을 증진시켰다.

두 번째는 콘텐츠 개발이다. 광주·전남의 지역적인 명산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고 아끼는 힐링의 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원과 함께 연계되는 산 중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무등산 산림자원의 특성을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힐링모델 등을 만들어 현세대 및 미래세대 모두가 즐기고, 배우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이고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야 시민을 비롯한 사랑에서 찾아오는 광주의 손님을 기쁘고 안전하게 대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국가차원의 공원관리되자마자 예전보다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무등산사랑실천으로 시민의 삶 속에 무등산이 자리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잠깐이요. 무등산이 어디에 있습니다?”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한다. 뇌를 잘 활용하는 교육이 뇌교육이다.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한 BOS(Brain Operating System)의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 얼을 찾아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둘째,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좋은 뜻, 좋은 꿈, 좋은 비전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좋은 정보를 생산해 좋은 뇌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를 생산하면 좋은 뇌를 가진 좋은 사람이 된다. 멘탈헬스를 회복하는 과정은 뇌교육 5단계 ‘뇌감각 깨우기, 뇌유연화하기, 뇌정화하기, 뇌통합하기, 뇌주인되기’를 거친다.

먼저 뇌의 깊이 깨어나고 유연해져야 뇌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보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정화되면 뇌가 영점을 회복하고 제로상태가 된다.

뇌가 균형을 회복한 제로상태가 될 때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뇌가 통합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뇌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뇌교육을 통하여 멘탈헬스를 회복할 수 있지만, 멘탈헬스를 지속시키고 증진시키는 사회적 차원, 정부적인 차원의 노력과 시스템의 마련도 중요하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만 피우더라도 이웃 주민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담배꽁초는 가져가서 휴지통에 버리고 라이터나 심장을 창틀이나 복도계단 안쪽에 두는 일도 삼가야 한다. 자칫 아이들이 장난삼아 불을 켜다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시설

이제,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까지

학생 보호를 위해 채용하는 학교 경비원의 신분 검증시스템이 허술해 되레 학생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검증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가 학교안전 망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 대부분의 경비원이 응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장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응역회사와 계약하고, 그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국회 교과위 소속 여의원 11명이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는 학생 보호 인력 채용 후보자의 모든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학생 보호 인력 채용 후보자와 모든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을 촉구해야 하며, 학교안전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산하기관 직원 채용 ‘고무줄 기준’이라니

우 재학기간의 5월을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채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 모 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오모씨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6개월로 채용자격기준(5년)에 6개월 미달한 대로 대학원 학력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서류전형으로부터 탈락됐다.

채용공고 후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특정인 채용이라는 의혹을 사기 위해 충분하다. 당시 탈락했던 사람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재감사를 실시해 인사 비리 유무를 철저히 가려내고,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직원 채용이 이처럼 제멋대로라면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無等鼓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이자 야구 선수인 조성민(40)씨의 발인식이 지난 8일 유가족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다.

회려했던 빛과 짙은 그림자 사이에서 방황하던 ‘비운의 풍운’ 조성민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조성민씨의 자살은 계기로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자살률 수는 지난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은 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불행하다는 결론이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한 독일의 사회학자 윤리히 베도는 5년 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이며,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위험사회보다 더 심각한 위험사회”라고 경고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자살 사망자수가 1만55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2.6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극단

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이며,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위험사회보다 더 심각한 위험사회”라고 경고했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비원이 여중생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경